

산타로, 모나리자로 우주인으로...

“나야, 문희”

24일 개봉 영화 '나야, 문희' 배우 나문희

‘쿠키게임’ 등 AI 단편영화 공모전 당선작 5편 묶어 실제 배우 페르소나 드물어...최신 기술 총동원 “날개 달고 날아다니고 못가는 곳 갈수 있어 행복”

한국의 대표 원로 배우 나문희(83)가 인공지능(AI) 영화로 관객을 만난다.

박원표 감독의 ‘쿠키게임’, 유지천 감독의 ‘나문희 유니버스’, 원경혜 감독의 ‘지금의 나, 문희’, 정은옥 감독의 ‘두 유 리얼리 노우 허’(DO YOU REALLY KNOW HER), 이정찬 감독의 ‘산타 문희’ 등 5편의 AI 단편영화를 묶은 ‘나야, 문희’를 통해서다.

이 영화들은 나문희를 주인공으로 한 생성형 AI 단편영화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로, 오는 24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AI 기술로 구현된 나문희는 이들 작품에서 산타, 모나리자, 우주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제가 몸이 자유롭게 안데 영화에선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하네요.”

나문희는 11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나야, 문희’를 관람한 뒤 자신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게 됐으며 반가워했다.

그는 “가만히 있어서 뭐 하겠느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보다 사는 날까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좋다”며 꾸준히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배우로서 호흡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 고전 음악을 열심히 듣고, 딸에게 피아노도 배우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AI 영화로는) 오페라 주인공도 해보고 싶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AI 영화 속 나문희는 ‘이런 나문희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 영화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실제 배우를 페르소나로 삼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제작사 MCA의 박재수 대표는 “실제 스타 배우가 AI 영화에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우를) 그럴듯하게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며 “나문희 선생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야, 문희’에서의 나문희는 실제와 비교하면 목소리나 발성, 외모 등이 다소 어색한 면이 있다. 특히 성우 출신으로 뚜렷한 대사 전달력을 지닌 나문희의 장점이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나문희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소리에 대한 에너지가 아직 있구나’를 느꼈다”면서 “처음엔 (영화 속 목소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나와 아주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더라”며 웃었다.

박 대표는 “‘나야, 문희’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기술이 총동원됐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테지만 다음에는 더 발전한 영화를 선보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상영회 후에는 나문희가 당선작 감독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는 시상식도 열렸다. 대상작은 정은옥 감독의 ‘두 유 리얼리 노우 허’다.

/연합뉴스

로제 ‘아파트’ 빌보드 17위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7주 연속 진입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사진)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듀엣으로 부른 ‘아파트’(AP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전주보다 순위가 끌어올리며 7주 연속 진입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는 ‘핫 100’에서 5위 상승한 17위를 기록했다.

이 노래는 로제의 정규앨범 ‘로지’(rosie)의 선공개 곡으로, ‘아파트 아파트’를 반복하는 중독적인 가사가 특징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후’(Who)는 전주보다 9위 오른 47위로 20주 연속 같은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동료 멤버 뷁가 가수 박효신과 호흡을 맞춘 ‘윈터 어헤드’(Winter Ahead)는 ‘핫 100’에 99위로 처음 진입했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에이티즈의 ‘골든 아워 : 파트 2’(Golden Hour : Part.2) 62위, 엔하이픈의 ‘로맨스 : 언톨드’(Romance : Untold) 63위, 방탄소년단 지민의 ‘뮤즈’(Muse) 114위, 스트레이 키즈의 ‘에이트’(ATE) 157위, 방탄소년단 진의 ‘해피’(Happy) 160위로 각각 나타났다.

/연합뉴스

권상우 ‘히트맨 2’ 개봉박두

2020년 240만 관객 동원...다음달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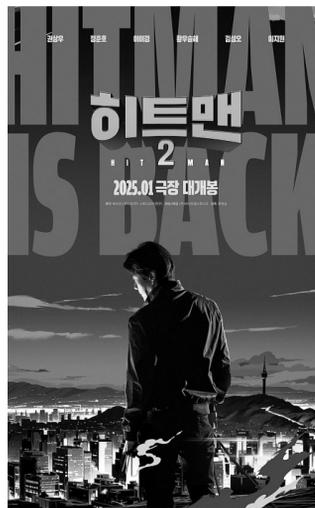
권상우 주연의 코미디-액션 영화 ‘히트맨 2’가 내년 1월 개봉한다고 배급사바이포엔스튜디오가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설 연휴에 개봉해 240만여 명을 동원한 ‘히트맨’의 속편이다.

특수요원에서 흥행 윗 톤 작가로 거듭난 준(권상우 분)이 야심 차게 선보인 신작의 스토리를 모방한 테러가 발생해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다.

권상우를 비롯해 정준호, 이이경, 황우슬혜, 이지원 등 1편에 등장한 배우진에 더해 김성오가 새롭게 합류했다.

1편을 연출한 최원섭 감독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았다. /연합뉴스



올 노래방 최고 애창곡은 이창섭의 ‘천상연’

TJ미디어, 반주기 연주 집계 ‘헤어지자 말해요’·‘예뻐어’ 순

올 한해 전국 노래방에서 가장 사랑받은 곡은 비투비 이창섭의 발라드 ‘천상연’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TJ미디어가 1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TJ반주기 연주 횟수를 집계한 결과 ‘천상연’은 올해 TJ노래방 최고 인기곡에 올랐다.

이 노래는 비비의 ‘밤양갱’을 제치고 4월 초부터 9월 말까지 24주 연속 1위를 기록해 차트 정상에 가장 오래 머문 곡으로도 선정됐다.

노래방 연간 차트에서는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데이식스의 ‘예뻐어’, 임재현의 ‘비의 랩소디’, 이지(izi)의 ‘응급실’이 2~5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 너드커피션의 ‘그대만 있다면’(6위), 스탠딩오그

의 ‘오래된 노래’(7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8위), 엠씨더맥스의 ‘어디에도’(9위), QWER의 ‘고민중독’(10위)이 ‘톱 10’에 들었다.

TJ미디어가 연간 차트 300위권을 분석했더니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노래들이 노래방 차트에서도 역주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조영남의 대표곡 ‘화개장터’는 유튜브 이승빈이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화제를 모은 데 힘입어 작년 대비 노래방에서 불린 횟수가 17배 증가했다.

에스파파(탁재훈)의 ‘참 다행이야’ 역시 유튜브에서 탁재훈과 아일의 듀엣 영상이 450만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6배 더 많이 불렸다.

TJ미디어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천상연’ 등 7곡의 남성 발라드가 10위권을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면서 “하반기에는 데이식스·QWER 등 밴드 음악이 대세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